"강한 경제 전주, 전라도 수도로"

우범기 시장, 전주 대변혁 향한 민선8기 시정운영방향 발표

우범기 전주시장이 13일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를 민선8기 시정목표로 밝히고, 세부 과제로 완주~전주 통합과 KTX 천안~전주선 유치, 조선왕조 왕의 궁원 1조원 프로젝트, 생애 전 주기 교육복지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우범기 시장은 이날 제394회 임시회가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으로 강한 경제력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8기 시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천년 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 △시민이 부자되는 강한 경제 △글로벌 산업으로 우뚝 서는 문화 △일상에서 누리는 신바람 복지를 시정 목표 실현을 위한 4대 방침으로 제시했다.

우 시장은 '천년미래를 여는 전주의 큰 꿈'과 관련, "100만 광역도시를 향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은 전주와 전북 발전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필수과제"라며 "전주시가 먼저 통 큰 양보를 하고 완주군과의 실질적인 상생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역도시에 걸맞은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주시시정연구원을 설립하는 한편, 새만금~김천고속도로 건설, 전주~김천 철도 건설, KTX천안~전주선 유치, BRT(간설급행버스) 구축 등 교통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개발과 관련해서는 투명한 논의를 강조하며 "행정절차와 여러 과제가 있지만 임기 내 제대로 설계하고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13일 제394회 임시회가 열린 전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전주는 후백제의 수도이자 조선왕조의 본향으로 강한 경제력과 문화의 중심지였다"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민선8기 시정운영방향을 밝혔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전주를 만들어 '전주형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하고, 전주를 돈 벌 곳, 돈 쓸 곳 많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 수소, 드론 등 미래산업을 확장시킬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가탄소산업단지를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노후화 된 팔복동 산업단지를 지식정보산업중심의 첨단 디지털단지로 탈바꿈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유치, 금융공공기관 이전과 탄탄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산업분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전주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도시가 아닌 전국의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 시장은 문화 분야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산업화를 강조하며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라감영, 조경단, 객사 등 전주 곳곳에 산재한 조선왕조 관련 유적과 음식, 소리, 전통 춤 등을 융·복합시켜 전주에서만 즐길 수 있는 '조선왕조 왕의 궁원 1조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후백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후백제 왕도를 복원해 전주의 문화적 자산을 넓히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각종 축제들을 집중하고 융합해 전주의 멋과 맛을 맘껏 뽐낼 수 있는 '미친 축제'를 개최해 글로벌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대한민국 대표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야간경제·관광특구를 조성하겠다"고도 했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전주에서 내가, 자녀가, 부모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생애 전 주기 맞춤형 교육복지체계 구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과 견줘 정보격차 없이 학업기 전반에 걸쳐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 기업, 교육청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교육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 동주민센터를 행정·복지·문화·체육·공동체 기능이 복합된 시민편의 중심의 행정복합커뮤니티 센터로 교체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다문화가정, 보훈가정 등 구석구석 시민 속으로 들아가 빠짐없이 살피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민선8기 시정운영방향과 지방선거 공약을 토대로 정책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제 다시 큰 그림, 큰 뜻을 가지고 미래를 향한 도약을 시작한다. 자랑스러운 전주를 향한 큰 꿈은 저 하나로 결코 될 수 없다. 66만 시민과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하면 이룰 수 있다"면서 "때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소통하고 협의하며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클래식·재즈·국악' 한자리에

전주덕진예술회관서 15일 '아트 플라즈마 클래식 콘서트' 개최

관객들과 함께 클래식과 재즈,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소통하는 무료 공연이 펼쳐진다.

전주시는 15일 오후 7시 30분 전주덕진예술회관에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주최하고 전주덕진예술회관과 (사)타악연희원 아뤼가 주관하는 '2022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아트 플라즈마 클래식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공연장 상주단체 교류공연인 이번 콘서트에는 장수한누리전당의 공연장 상주단체인 '예술 담은 나라'가 공연을 펼치게 된다.

우주 구성 물질의 99%를 차지하는 '플라즈마'는 '제4의 물질 상태'라는 의미의 과학 용어로, 기체에서 전자와 원자핵이 분리돼 자유로운 상태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것을 '플라즈마'라는 새로운 물질로 부른다.

이번 '아트 플라즈마' 공연은 클래식과 재즈, 국악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열정 가득한 예술적 에너지로 승화돼 관객과 소통하며 어우러지길 바라는 뜻에서 기획됐다.

'예술 담은 나라'의 대표이자 음악감독·지휘자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대정랑 이사장은 "'아트 플라즈마'는 뜨거운 열정과 화려한 웅장함이 가득한 예술적 요소로 관객에게 벅찬 카타르시스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며 "각기 다른 악기의 대립과 화합에서 나오는 즉흥 재즈 연주와 섬세한 클래식 연주가 더해지는 융복합 다원 예술은 관객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연은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기조에 따라 전석 무료로 제공되며, 예매는 나루컬쳐(www.naruculture.com)에서 가능하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1644-4750, 070-7558-4023)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은 13일 중부비전센터에서 '2022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전달식'을 열어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전주덕진공원으로 연꽃문화제 보러 오세요"

16~17일 연꽃 개화시기 맞춰 연꽃가요제 · 전통문화 체험부스 · 축하 공연 등 진행

연꽃이 꽃망울을 터뜨린 전주덕진공원에서 시민들의 무더위를 시켜줄 문화축제가 열린다.

전주시는 덕진공원에서 오는 16일과 17일 이틀간 사단법인 우리문화연구원(대표 일원)이 주최하는 '2022 전주연꽃문화제'가 개최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덕진공원에는 연꽃이 연분홍색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면서 이를 촬영하려는 사진작가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잇따르고 있다.

연꽃 개화시기에 열리는 이 행사에는 △연꽃가요제 △전통문화 체험부스 △축하공연 △연꽃합창단 공연 △초대가수 남궁옥분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가 준비됐다.

전주시가 준비한 덕진공원 포토 이벤트도 오는 16일부터 3주 동안 매주 주말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연꽃문화제와 더불어 덕진공원이 가진 다양한 매력을 느끼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만개한 연꽃을 만날 수 있는 전주덕진공원은 관광객들의 여름 나들이 최적의 장소"라며 "많은 분들께서 여행일정을 잡아 덕진공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주덕진공원 연꽃은 지난 1974년 식재된 홍련으로, 진한 연분홍빛에 어른 머리만한 크기로 유명해 매년 많은 관광객과 사진작가들이 찾고 있다. /김윤상 기자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전달식' 개최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13개소에 6500만원 사업비 전달

지역 주민 공동체들이 사회적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복지사업이 추진된다.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이사장 이병관)은 13일 중부비전센터에서 '2022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 전달식'을 열어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주민복지공동체, 사회복지단체 등 13개소에 총 6500만 원의 사업비를 전달했다.

'2022년 복지공동체 공모사업'은 지역복지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과 장애인, 아동·청소년, 고립가구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에 대한 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돕는 사업이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중장년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고 그들이 사회적 관계망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 사업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주민복지공동체는 마을 구성원들이 시민참여형 복지공동체를 구성해 스스로 마을의 문제를 발굴하면서 나눔과 돌봄, 배려의 가치를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이병관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이사장은 "복지공동체 지원을 통해 나눔과 공생의 문화를 실천하는 또 하나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복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이해하고 폭넓게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다양한 주제 전주 이야기 담은 '전주윤슬'

전주시 평생학습관, 영상 4편 유튜브 채널 · SNS 게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전주의 문화와 역사 이야기 등을 유튜브를 통해 알아볼 수 있다.

전주시는 문화·역사·유적·풍습 등 다양한 주제의 전주 이야기를 네 편의 영상으로 담은 '전주윤슬'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윤슬'이란 반짝이는 잔물결이란 뜻으로 '전주윤슬'은 반짝이는 전주 이야기를 의미한다. 전주시 평생학습관은 지난 2015년부터 매달 다양한 주제의 전주 이야기를 담은 '전주윤슬'을 발행해 전주상식의 대중화에 힘써왔다.

평생학습관은 지난달 기준으로 총 85호까지 발행된 전주윤슬이 담아낸 여러 가지 전주 이야기 중 전주시민이 꼭 알아야 할 주제를 선정해 영상으로 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전주윤슬 제29호인 '화합과 상생의 아이콘, 전주비빔밥' 영상을 전주시 평생학습관 SNS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남부시장 △건지산 △동학농민운동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전주윤슬 영상은 평생학습관 어린이인문학과 중학교 자율학기제의 윤슬활용강의에서 교육자료로 활용돼 어린이와 청소년의 흥미를 돋우는 시·청각적 매체로서의 기능도 하고 있다.

권인숙 전주시 인문평생교육과장은 "다양한 분야의 전주 이야기가 영상으로 제작되어 더욱 많은 이들에게 쉽고 흥미롭게 다가가길 바란다"면서 "또한 이번 전주윤슬 영상 콘텐츠를 통해 지역 관심도가 증대되고 자긍심이 고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북병무청, 노송119안전센터와 합동소방훈련 실시

전북병무청은 13일 청사 내 주차장에서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노송119안전센터와 '2022년도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훈련은 화재 발생을 대비, 초기 대응 능력 배양 및 자율소방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청사 본관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을 설정해 이뤄졌다.

이번 훈련은 최초 화재 발견자 소방서 신고부터 초기 진화, 인명대피 및 중요문서 반출, 환자 후송 및 응급조치, 119소방차 화재진압 등 실전처럼 진행됐다.

전북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 및 피난·대피요령 등 신속한 대응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자율소방체계 확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13일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공직자 등 80여 명을 대상으로 깨끗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신고행위 5가지, 제한 및 금지행위 5가지 등 모두 10가지에 대한 공직자의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으로 지난 5월19일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공공기관은 1년에 1회 이상 이행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을 시행해야 하며, 이날 교육에는 한세근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이 강사로 나섰다.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은 "청렴한 의정활동은 시민의 신뢰를 받는 가장 빠른 길"이라며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새롭게 변모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